

미국 의회도서관(L.C.)의 역사적 발전과 현황에 대한 고찰

류 인 석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목 차

| | |
|----------------|--|
| I. 서 론 | |
| II. 의회도서관의 역사 | |
| III. 현재의 의회도서관 | |
| IV. 결 언 | |

I. 서 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오랜 옛날부터 자료의 수집 보존 이용 기관인 도서관은 자료를 통하여 인류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대처하여 왔기 때문에 사회나 국가의 주요기관으로 비록 인식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그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따라서 도서관은 역사적으로 볼때 지식과 정보를 심혈을 기울여 지켜온 요새(要塞)라 볼 수 있다. 초기 형태의 도서관은 공시문서나 기록보존소로서 국가의 기록이나 종교적인 비밀문서를

보관하는 궁전이나 사원에 부속된 건물이나 방이었다. 그리고 이용은 통치자, 귀족, 승려 그리고 자료를 관리하고 생산하는 서사생(書寫生) 등 극히 소수인만이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반인은 대부분 읽지도 쓰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 따라서 도서관은 권력이나 부가 있는 자만의 전유물이 되었고 다분히 지배자의 의도가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8세기까지 계속하게 되었다. 불란서의 국립도서관처럼 유럽의 오늘날의 대부분의 대도서관은 왕실문고나 사원 문고에서 출발을 하게되어 이러한 도서관은 자

연적으로 군주나 사제의 뜻에 따라 관리 운용 등이 통제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국의 의회도서관은 이와는 아주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갖고 설립되었다. 미국 독립 초기에는 아주 적은 양의 참고도서를 보유하고 국회의원이 법률을 초안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새로운 국가의 외교문제를 다루는데 보조 역할을 하였다. 그 후 의회도서관은 점점 성장 발전하여 19세기말에는 미국이 세계권력의 지위에 오름에 따라 국가의 중요기관으로서 그리고 국제적인 기구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은 시설이나 자료의 규모면에서 세계의 최대 도서관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의회도서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의 모든 문제의 정보를 다루고 관여한다는 입장에서 하나의 “작은 정부”로 그리고 직원과 자료의 구성 또한 전 세계적이란 입장에서 하나의 “작은 유엔”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그의 저서 “권력이동(powershift)”에서 지적한 대로 권력은 폭력과 부에서 지식과 정보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올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지배하는 사회로서 권력 장악은 지식과 정보를 가진 개인이나 국가가 갖게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지식과 정보의 창출기관인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며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와 인식에 바탕을 둔 내실있는 운영이 요구된다.

이런 때를 맞이하여 미국의 국가대표도서관이

자 세계 최대의 도서관인 미국의회도서관의 역사·현황·기능들을 소개하는 것도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II. 의회도서관의 역사

대륙의회 의원들이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이어 1787년에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미국의 공화제 성공을 전연 확신하지 못하였다. 미국의 입법가들은 고대와 그 당시 경험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알려고 노력하였다. 의회가 최초로 소집되었을 때 의원들은 지역의 도서관회사나 클럽에서 역사, 경제, 정부에 관한 주요한 장서를 빌리거나 찾게 되었다. 연방정부가 1800년에 새 수도 워싱턴으로 옮겼을 때 아무런 자료도 있지 않아 의회도서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1793년에 승인된 의사당건축계획에 도서관을 포함시켰다. 1800년에 의사당건물의 북쪽부분이 완성되고 의회는 장서 구입비로 5,000불을 승인하고 상하양원 의원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의회도서관을 설립하게 되었다.

1802년 1월 26일 의회는 “양원이 이용할 도서관에 관한 법령”을 최초로 통과시켰는데 이 법에서 관장은 미국의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최초의 의회도서관은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제퍼슨 대통령은 하원의 서기였던 존 벅크리(John Jame Beckley)를 초대 관장에 임명하였다.

1812년 영국군이 워싱턴에 침입하여 의사당

건물을 불태워서 여기에 소장된 3,000권 정도의 대부분의 장서가 파괴되었다. 이에 대해 의회는 1815년 상당한 토의를 거쳐 은퇴한 제퍼슨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50년 동안 모은 장서 6,487권을 23,950불을 지불하고 구입하였다. 이 자료는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집서로 의회도서관 재건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립도서관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그 해에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 대통령이 임명한 조지 워터슨(George Watterson) 신임 관장을 1815년부터 1829년까지 재임 동안 의회도서관 장서를 증가시키고 국립도서관 개념을 인식시키는데 노력하였다.

미국의회는 1832년에 의사당의 지하층에 2,000권 소장의 별도 법률도서관을 설치하였으며 의회도서관이 국가문헌보존소 역할을 하도록 업무를 확대하였다. 1846년에는 저작권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최초로 개인저작 3부를 정부에 납본하도록하여 그 중 1부를 의회도서관에 보존하도록 하였다. 이에 의회는 의회도서관의 발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1851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의회도서관에 화재가 발생하여 의회도서관 장서 3분의 2정도인 35,000권이 소실되었는데 다행히도 20,000권으로 성장한 법률도서관 장서는 피해를 입지않았다. 이에 대처하여 의회는 도서구입비로 75,000불과 열람실 재건에 93,000불의 예산을 승인하였다.

그 후 의회도서관은 몇몇 관장의 시기에 획기적인 발전을 보았는데 우선 스포포드(Ainsworth Spofford)시기를 보면 1864년 링컨 대통령이 임명한 관장으로 그는 정치보다는 책을 사랑하

는 학자로서 32년 동안 재직하면서 의회도서관을 위대한 국가의 국립도서관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였다.

그의 재임기간 중 의회도서관의 발전 내용을 보면 1870년에는 저작권에 관한 업무가 특허청으로부터 의회도서관으로 이관되었으며 장서도 82,000권에서 237,000권으로 증가하였다. 그 당시 저작권법은 모든 저작의 2부를 의회도서관에 납본할 것을 명기하고 위반시에는 최초로 벌칙이 주어지도록 하였다. 이 법 조항에 의하여 단행본, 연속간행물, 음악작품, 사진, 프린트물 그리고 지도 등 다양하고 많은 자료를 납본 받았다.

그 보다 앞서 1866년 4월 5일 법에 의하여 스미소니언연구소(Smithonian Institution) 장서 40,000권을 이관받고 동 연구소의 자료의 국제교환업무도 1867년 이관받아 그 업무를 실시하였다.

1886년에는 의회도서관의 공간부족 때문에 의사당의 동편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새 건물은 1891년에 착공하여 1897년 11월 1일에 준공을 보게되었는데 그 건물을 돌과 대리석 등 좋은 재료로 건축하고 벽화와 조각품들로 장식하여 학문과 예술성을 상징하고 세계문명을 대표하는 문화적인 공간이 되었다. 이 건물이 의회도서관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현재의 제퍼슨 빌딩이다.

다음이 푸트남(Herbert Putnam)관장 시기로 1899년부터 1939년까지 40년동안 재직한 관장으로 역대 관장 중 가장 오래도록 근무한 사람

이다. 그는 하버드와 콜럼비아 대학에서 법학공부를 하였으며 미네아폴리스와 보스톤공공도서관장도 역임하였다. 그의 이러한 배경으로 재임기간 의회도서관의 발전도 많았다.

의회도서관은 이 시기에도 도서관 장서를 문자숫자처리시스템으로 재정리하고 카드목록시스템을 채택하여 미국의 도서분류체계의 기준이 되었다. 1901년에는 인쇄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다른 도서관에도 판매하였으며 자료의 상호대차제도도 실시하였다. 그리고 1903년에는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대통령의 명에 의하여 미국무부와 기타 정부기관의 역사적인 기록문서를 이관받았다. 1915년에는 상하양원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돕기 위하여 입법참고부(Legislative Reference Services)를 설치하였으며 1925년에는 기부금과 자료, 기타 시설과 물품의 기증을 받기 위하여 의회도서관에 대한 신탁기금법령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1930년에는 본관 뒤편에 부지를 마련하여 650만불의 예산을 승인 받아 부속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은 1939년에 개관되었으며 이것이 오늘날의 존 아담스빌딩(John Adams Building)이다.

그 다음의 중요한 변화의 시기가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대통령이 1954년에 임명하여 20년 동안 재직하다가 1974년에 퇴직한 머포드(L.Quincy Mumford)관장의 시기다. 그는 전문 훈련을 받은 도서관장으로 뉴욕공공도서관장과 크리브랜드공공도서관(Cleveland Public Library) 관장을 역임하였다. 그의 재임 초기 10년에 예산을 930만불에서 2,400만

불로 증액되었다.

이 때에 의회도서관은 1956년 이전에 출판된 책에 대해서 국가종합목록(National Union Catalog)을 출판하기 시작하였고 목록의 자동화와 함께 새로운 책이 출판되기 전에 목록이 이루어질 수 있게 CIP(Cataloging in Publication)의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결국 1973년부터 채택하게 되었다.

의회도서관은 추가적인 공간의 필요성에 의하여 건물 신축에 12,300만불의 예산이 책정되어 1965년에 짓기를 시작하여 1980년에 일반에게 공개되었는데 이 건물이 제임스 매디슨빌딩(James Madison Building)이다.

이와 같은 성장 발전의 역사와 더불어 의회도서관은 현재 직원은 1987년 4월에 레이건(Ronald Reagan)대통령이 임명한 13대 관장, 러시어사를 전공한 제임스 빌링톤(James H. Billington)을 비롯하여 5,043명이며 자료는 분류된 장서 15,374,079권을 포함하여 전체 자료는 98,636,954건이며 예산(1992 회계연도 기준)은 322,288,000불이다. 이와 같은 의회도서관의 규모는 의회도서관의 기능과 국가대표도서관 기능의 이중기능을 수행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대 도서관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III. 현재의 의회도서관

1. 건물과 시설

캐피틀 힐(Capitol Hill)에 위치한 의회도서관은 제퍼슨, 아담스 그리고 매디슨 빌딩 등 세계

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세 건물은 지하 통로로 서로 의사당까지 연결되어 있다.

제퍼슨 빌딩은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을 기념하기 위하여 1980년에 재명명된 건물로 1897년에 지어졌으며 의회도서관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이 건물은 이태리의 르네상스식 건물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비용이 많이 든 도서관 건물이다. 이 건물은 훌륭한 조각품, 벽화 그리고 50명의 미국 예술가가 창조한 모자이크 그림으로 장식되었다. 건물의 중앙 홀은 탑 형식의 대리석 원주와 벽화와 모자이크, 조각, 채색유리 그리고 많은 세계문명을 추구한 학자·철인·지식인과 관계된 주제를 다룬 조상(彫像)으로 장식되어 있다.

1991년 초에 다시 공개된 중앙열람실은 천정의 돔(dome)으로 이루어진 높이 160피트(약 48m) 넓이 100피트(약 30m)의 커다란 원형 열람실로 250석 정도의 열람석을 보유하고 있다.

주변과 천장장식은 중앙홀 처럼 위대한 인류 문명의 발달을 상징하는 조각 조상 벽화 모자이크 채색유리로 장식되어 있으며 주위는 앨콕(Alcove)식 참고열람실과 서고로 되어있고 여기에 소장된 참고도서는 약 45,000권에 이른다.

단행본과 기타 자료를 소장한 서고는 중앙열람실과 방사형을 이루고 있으며 열람석 중앙에 있는 대출카운트는 다른 도서관 건물 서고와 자료를 선로형식의 기계장치로 운반할 수 있는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 건물에는 주로 귀중도서 및 특수집서 열람

실, 향토사 및 족보열람실, 마이크로자료열람실, 민속자료열람실, 의회전용열람실, 유럽자료열람실, 스페인자료열람실, 아동문화센터 그리고 사무실로는 자료의 대차부서가 수용되어 있다.

제퍼슨 빌딩 바로 뒤편에 위치한 아담스 빌딩은 1939년 개관한 별관으로 미국의 제2대 대통령 존 아담스(John Adams)를 기념하기 위하여 재명명된 건물이다.

이 건물은 제퍼슨 빌딩과 비교하면 간소한 것 같지만 1925년에 개최한 파리의 장식예술전시회의 영향을 받아 장식예술 건축 양식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다. 이용자 공간은 상상력이 풍부한 벽화로 장식되었으며 특히 유명한 것은 건물의 5층 열람실에 있는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Chaucer's Canterbury Tales)의 장식용의 훌륭한 금속조각품이다.

이 건물에는 아프리카, 아세아, 근동, 히브루 지역 등의 각 열람실과 자연과학열람실, 사회과학열람실, 사무실로는 목록배포부서 그리고 기타 사무실을 수용하고 있으며 도서관학 관계자료는 이곳 서고에 소장되고 있다.

특히 이 건물 이층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세아 3개국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아세아부서 내에 한국과가 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한국과를 소개하면 한국과는 한국국제문화협회 후원으로 1950후반에 미국의 연방정부기관과 학계의 한국동란에 관한 참고자료의 필요성 증가로 현 아세아부서인 동양부서내에 설치되었다. 한국어로 된 자료 정리를 위하여 량기백 박사가 최초의 정식 직원으로 임명되었다.

행정조직상 1964년부터는 한중과로 되었다가 자료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한국문제가 미국의 초점이 되었으며 한국의 경제,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여기에 발맞추어 한국인의 미국 이민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정부기관, 학계 및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인이 한국에 대한 정보와 자료 그리고 한국에 대한 연구가 요구됨으로 독립된 과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의회도서관내에 독립된 한국과의 설치는 한국의 국제문화협회가 미국의회의 2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00만불을 기증하였는데 이 금액으로 한국의 학문적인 출판물을 많이 수입하고 한국자료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이고 문화적인 계획도 수립하였다. 이러한 발전과정을 거쳐서 량박사는 1972년부터 한국지역의 주제전문가가 되고 독립된 한국과의 설치를 보게 되었다.

현재 한국과에는 량박사를 비롯하여 5명의 직원이 있으며 자료는 처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4,500권의 단행본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한국에 관한 각종 단행본, 정부 및 단체간행물, 한국의 신문 및 잡지 등의 연속간행물, 북한자료 등으로 120,000권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한국과의 자료는 한국 이외의 지역에 서는 가장 큰 규모의 한국자료이고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한국과는 미국의 정부기관 학자 일반 이용자 그리고 미국 주재 한국공관, 기타 미국 주재 각종 기관 단체, 교포 및 유학생에게 봉사를 하고 있다.

다음 건물이 의회도서관에서 가장 새로운 건물인 매디슨 빌딩으로 이는 미국의 제4대 대

통령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을 기념하기 위하여 명명된 건물로 1988 현재 도서관 단일 건물로 세계에서 가장 크다. 이는 인디펜던스가 (Independence Avenue)를 가운데 두고 제퍼슨 빌딩의 맞은편에 있으며 이 건물 하나가 완전히 거리의 한 블럭(block)을 차지하고 있다. 이 건물은 1980년에 일반에게 공개되었으며 매디슨 대통령의 거대한 동상이 있는 넓은 기념홀을 제외하고는 이 건물은 별다른 큰 특징이 없다. 이 건물 내부는 벽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모듈러(modular)식으로 지었다.

이 건물에는 주로 의회도서관의 행정사무실이 수용되어 있으며 지도, 원고, 영화와 TV, 프린트물과 사진, 음반 등의 비책자자료 열람실과 신문과 연속간행물 열람실 그리고 방문자 안내극장, 홍보실과 안내실, 기념품점, 식당 등이 있다.

2. 자료

의회도서관의 자료는 파피루스부터 광디스크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자료를 포함하여 1991회계년도 말 현재 총 98,636,954건으로 이 자료를 소장할 서가의 배열 길이도 575마일(약 926km)에 이르며 자료수입을 시간별로 따지면 1분간 약 10건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자료의 내용은 다양하며 그 중요한 부분은 470종의 언어로 된 2,700만권 정도의 단행본과 팜플렛, 3,600만건의 원고, 400만건의 지도와 지도첩, 전 세계에서 수집된 악보와 작곡자 및 음악가의 편지 등을 포함한 700만건의 음악자료, 1,200만건의 프린트물, 700만건의 마이크로

자료와 기타 영화, 사진, 비디오 테이프 등의 시청각자료로 이루어져 있다. 연속간행물은 1년에 약 75,000종이 수입되며 신문은 1,200종 정도로 도서관 영구장서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의 증가를 년도별로 잠깐 살펴보면 의회도서관이 최초로 의사당내에 설치된 1800년에는 243책으로 출발하여 의사당이 화재로 파괴된 1814년에는 6,500권 새로운 저작권법에 의하여 2부의 납본이 시작된 1870년에는 단행본 이외의 자료까지 합하여 10만건, 1897년 제퍼슨 빌딩이 일반에게 공개되었을 때는 90만건, 1939년 아담스 빌딩이 개관되었을 때는 900만건, 1960년 도서관에 컴퓨터가 도입되고 의회도서관이 세계적인 지식의 보고가 되었을 때는 3,900만건, 1980년 매디슨 빌딩이 개관되었을 때는 7,700만건 그리고 1991회계년도 말에는 단행본에서 광학디스크까지 포함하여 9,860만건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막대한 자료의 수입으로 미정리 자료의 적체가 심하여 이를 년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적체율을 감소시키고 있다.

1991회계년도 1년간의 자료수입은 1,504,497건에 자료의 폐기가 131,790건으로 동년도의 자료의 폐기율은 11.4%에 이른다. 동 년도에는 또한 새로운 장서개발정책 규장(規章)이 발표되었는데 그것은 외국의 정부간행물, 일반 연속간행물 그리고 과학과 산업분야의 출판물에 관한 사항이고 세부지침은 영구장서에 대한 자료의 폐기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시적인 자료에 대한 장서개발정책 규장의 절차는 년말에 검토하게 된다.

3. 직원과 기구 및 예산

1) 관장의 임명과 업무

1802년 1월 26일 최초로 “양원이 이용할 도서관에 관한 법령”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이 법에 의하여 의회도서관장은 미국의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상하 양원 의원으로 구성된 도서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법령에 기초한 도서관장의 임명은 현재에도 적용되어 도서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는다. 그리고 도서관장이 집행할 도서관 예산은 의회의 승인과 검토를 거친다. 또한 도서관이 수행한 업무는 도서관합동위원회에 보고한다.

도서관의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장악하며 관장은 자료부, 의회부, 열람부, 저작권부, 문화업무부, 법률도서관, 도서관경영부 그리고 특수업무부 등 8개 부서의 업무를 감독하고 관장 직속으로 각 부서의 책임자인 부관장으로 이루어진 도서관 경영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관장은 비록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정권이냐 대통령이 바뀌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계속 연임한다. 그래서 제퍼슨 대통령이 존 베크리를 초대 관장으로 임명한 이래 대략 190년의 의회도서관 역사에 13명의 관장이 재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평균 재임 기간은 약 15년에 가깝다. 7대 관장 존 영(John Russell Young)은 임기중 사망으로 인하여 14개월 정도 근무했지만 6대 관장 에인

스위즈 스포포드는 32년간 재직하였으며 8대 관장 허버트 푸트남은 40년간, 11대 관장 멀포드는 20년간 근무하였으며 현 13대 관장 제임스 빌링톤 역시 1987년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하여 대통령과 정권이 바뀌어도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다.

2) 직원 현황

현재의 직원 현황은 1991년 회계년도 말 기준 총 5,043명으로 관장실 기타 59명, 의회조사부 844명, 저작권 등록청 581명, 법률도서관 105명, 관리부 749명, 문화업무부 100명, 자료부 1,542명, 열람부 1,045명 그리고 특수업무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예산

의회도서관의 최초의 예산은 1800년에 장서 구입비로 5,000불을 승인한 것을 비롯하여 1812년에는 영국과의 전쟁으로 장서가 피해를 입자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장서구입비로 15,000불을 사용하도록 승인하였다. 그리고 1851년에는 화재가 발생하여 장서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서는 75,000불을 승인하고 열람실 재건을 위하여서는 93,000불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1865년 스포포드 관장 재임시는 도서관 확장을 위하여 160,000불의 예산을 승인하였으며 1930년에는 부속건물을 신축하는데 650만불의 예산을 승인하였다.

이어서 1947 회계년도에는 975만불의 예산이 확정되었으며 1960년대 멀포드 관장 재임기간

에는 2,400만불로 증액되었다. 그리고 1974년에는 9,670만불의 많은 예산의 증액을 보았다.

이러한 예산의 계속 증액으로 1992 회계년도 예산은 전년도 보다 9% 증가한 총액 322,228,000불이다. 이 기간의 중점 사업은 전산화 시스템의 현대화와 새로운 시설의 기술개발과 데이터 베이스의 확대 등이다. 그리고 대체적인 예산내역은 봉급과 기타 경비 196,266,000불, 의회조사업무 55,725,000불, 저작권 등록청 25,823,000불, 맹인 및 기타 장애인 자료구입비 41,179,000불 그리고 도서관 비품비 3,235,000불 등으로 되어 있다.

4. 주요부서 업무

1) 자료부

자료부서의 주요업무는 자료의 선정과 수집, 수집자료 우선순위 결정, L.C.시스템으로 분류, 목록, 주제분석, 보존, 폐기 결정 그리고 통계 작성 등이다.

수서의 기본 방향은 인간의 지식과 창작물에 대한 전 세계적인 자료의 수집이다. 그리고 자료의 수집은 주로 저작권법에 의한 납본, 장애자를 위한 특수자료 구입, 그리고 교환과 기증 방법에 의한다. 여기에서 외국자료의 수집은 주로 기증이나 교환에 의한다. 최근의 수서정책은 물론 기존자료 수집에도 노력을 하지만 전자자료나 마이크로자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료의 정리에 있어서는 1940년 12월 도서관 일반명령 1004호로 기술목록과 주제명 목록을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고 업무를 분담하였다. 주제명목록을 다루는 부서는 모든 책의 주제분

석을 하고 주제명표목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담당자는 주제전거기록(Subject Authority Record)를 작성하여 심의를 거쳐 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 추가한다. 주제전거기록의 예를 들면 최근 몇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책의 출판도 상당한 주제 Han(恨, Psychology)과 Minjung theology(民衆神學) 등의 경우이다.

이 자료부는 이외에도 심진분류, MARC편집, 보존 등 많은 부서가 있는데 결국 지식과 정보에 대한 여러 형태의 자료수집과 정리 및 보존으로 미국의회, 다른 도서관 그리고 일반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심도있게 봉사하기 위하여 늘 새로운 방법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2) 의회부

이 부서는 의회에 관한 모든 문제의 연구조사 업무를 다루는 의회조사부(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CRS)가 있는데 이는 1915년 입법조사 보조를 위하여 의회에 설치되었던 입법참고부를 대체하여 1970년 법령에 의해 의회도서관내에 독립부서로 설치하였다. 이 조사부는 주제별로 상하 양원의 의원활동의 모든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회가 운영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한다. 청문회가 개최될 때는 그 문제에 대하여 권위있고 전문성 있는 증인의 선정에도 각 위원회에 도움을 준다. 1991년 9월말 현재 이 업무에 종사한 인원은 844명이며 이 중에서 550명이 해당분야의 전문가이다.

자료의 조사 응답 건수는 약 7,100건에 달하고 783,600건은 직접 생산해서 복사하여 의원 사무실에 배포하였다. 1991회계년도 문제는 주로 결프전, 의료보험, 무역, 예산증액 그리고 금융문제 등이었다.

3) 열람부

자료의 이용은 관내에 한하고 18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는 여권을 제시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수집서인 경우 연구나 조사목적이면 자료 이용이 허용된다. 관내열람인 경우는 이용자는 컴퓨터목록센터에서 자료를 찾아 주소, 성명, 청구번호를 기재한 열람표를 제시하면 자료를 열람석까지 직원이 갖다 준다.

참고부서는 의회에 관한 자료가 아닌 많은 질문을 처리하는데 이는 국내 문제 뿐만 아니라 국제문제도 다룬다.

1991 회계년도 자료 이용건수는 도서관내에 대출이 2,415,337건이고 직접적인 참고업무는 직접 개인이 온 경우 804,063건, 우편이 145,362건, 그리고 전화가 412,885건으로 총 참고업무 건수는 1,362,496건이다.

4) 저작권 업무부

저작권등록청 업무는 1870년 특허청으로부터 이관 받아 저작권법에 의하여 의회도서관 업무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저작권은 창조적인 작품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적권리를 보호하게 되었다. 납본에 있어서는 예술적인 저작물에 대해서는 1부를 납본받고 인쇄된 자료는 2부를 납

본 받는다. 보존에 있어서는 모든 납본자료를 전부 소장하는 것은 아니고 약 3분의 2정도 저작권 등록청에 소장한다.

5) 문화업무부

이 문화업무는 국가계획으로 도서관의 정보, 출판, 교육, 전시, 아동문학센터업무, 장애인 봉사업무 그리고 미국민속센터 업무를 담당한다. 이는 모든 도서관 대외봉사 업무의 일환으로 이러한 활동은 주로 실내악연주, 시낭송회, 영화감상, 강연, 심포지엄 등으로 일년내내 계속된다. 이러한 활동 중에서 중요한 것을 보면 시작활동에 기여한 시인, 소설가 그리고 희곡작가에게 도서관장이 주요한 상을 수여한 것이다.

또 하나의 업무는 저명한 저자, 비평가, 사실, 역사가 그리고 아동문학가를 초청하여 강좌 및 강연회의 개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1969년부터 실시한 아버즈날(May Hill Arbuthnot) 강좌가 유명하다.

그 다음 중요 업무는 각종 전시회로 특히 1993년 1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Rome Reborn : The Vatican Library and Renaissance Culture”라는 제목으로 바티칸도서관 소장자료 전시를 들 수 있다. 500만불의 예산으로 약 200점 정도의 보물급 자료를 제퍼슨 빌딩의 중앙홀 전시장에 전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아직까지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 귀중한 원고 책 지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는 그리스 로마시대 유물로 인문주의 재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자료들이다.

그리고 도서관 직원의 정서함양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직원 작품의 미술 및 공예 전시회도 개최하고 있는데 1993년 현재 21회째를 맞고 있다.

다음 의회도서관 자체 홍보로는 방문객 안내극장이 매디슨빌딩 1층에 있으며 22분짜리 도서관 소개 영화가 30분마다 매일 상영되고 있으며 하루에 3번씩 영화가 끝난 다음에 직접 안내원이 설명을 곁들여서 도서관을 견학시킨다.

6) 법률도서관

법률도서관은 1832년에 의회도서관내에 개설되어 있는 별도의 가장 오래된 부서이다. 열람실과 자료는 매디슨 빌딩에 있으며 각 지역별로 7개의 하부부로서 구성되어 있다. 자료는 약 250만권의 단행본, 연속간행물 그리고 기타 인쇄물이다. 이러한 자료는 법률관계자료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7) 업무의 자동화

의회도서관은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에 도서관업무의 자동화 실시의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1963년에 업무자동화의 이로운점에 대한 보고서를 기초로하여 도서관 내외의 인사로 전문가팀을 만들어 인쇄목록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포맷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중요한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 선도적인 업무는 1966년 초에 기계가독목록(MARC)을 개발하여 실행하게 되었다. 이 목록 프로젝트 성공은 필연적으로 고도의 컴퓨터 기술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켰고 특히나 도서관목록의 적체(積滯)를 해소시켰다.

오늘날의 자동화시스템 부서는 약 300명의 전문가와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개별 과업을 완성하고 단일 통일 시스템으로 통합시키는데 시간을 요한 것이다.

현재 시스템은 편목시스템으로 MUMS(Multi-Use-Marc System)와 검색시스템으로 SCORPIO(Subject-Content-Oriented-Retriv-er-for-Processing-Information-On-line) 그리고 CJK(Chinese Japanese Korean) 등이 있다. 검색시스템은 이용자가 수분내에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풍부한 정보를 검색하게 한다. 의회관계 기관에서는 2,000대 이상의 터미널에서 이용자나 연구자는 옛날 카드목록에서 얻은 저자나 서명 그리고 주제에 대한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개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CJK시스템은 한국, 중국, 일본 문자 처리를 위한 것으로 목록도 하고 검색도 할 수 있다.

1969년 이후 영어와 서구어로 출판된 자료는 완전 전산화 되었으며 이는 저자 서명 주제명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특수 이용과일은 저작권등록청, 회의조사부 그리고 도서관 내부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파일에 들어갈 때는 매일 최신성을 유지하거나 온라인화 된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은 일반 이용자는 이용이 제한되어 있다. 일반 이용자는 중앙 열람실의 재개방을 위하여 도입된 제퍼슨 빌딩과 아담스 빌딩의 주열람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목록센터에서 ACCESS방식으로 검색한다.

이 방식은 터치타입(Touch Type)으로 Interactive System이라고 하는데 터미널 화면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검색하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저자 서명 주제명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등으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또 의회도서관은 1981년 1월 1일부터는 자동화의 신기원을 이루었는데 1980년 12월 31일에 마지막 인쇄카드가 도서관목록카드에 추가되었다. 그 후부터는 목록은 컴퓨터시스템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 이전 카드목록은 PREM(Pre-MARC)시스템에 의하여 도서관 컴퓨터에 입력하고 있다.

IV. 결 언

이상에서 미국의회도서관의 역사적 발전과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바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신세기를 맞이하려는 현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거대한 계획과 이의 실현을 위하여 정보의 중요성과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활동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관의 자료처리와 접근기술을 계속해서 개발되어야 하며 새로운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활동이 연구 되어야 한다. 도서관의 컴퓨터 이용과 테리컴퓨터케이션(telecommunication)연구 발전은 자료처리와 이용편의를 계속 개선하여 앞으로는 도서관에 대한 개념과 현상이 달라질 것이며 물리적인 규모의 확대나 자료 치중의 기존의 도서관 업무틀에서 벗어날 것이다.

컴퓨터 시대가 진행됨에 따라 정보서비스는 컴퓨터 터미널을 통하여 직장이나 가정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른 이용자의 감소는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 기능의 다양성과 본래의 기능인 정보서비스 이외의 대외활동도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흥미와 즐거움을 유발하여 도서관이 시민생활의 문화센터나 포럼(forum)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기본적인 목적은, 물론 전세계의 대표적 도서관인 미국의 의회도서관의 역사적 발전과 현황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체는 우리나라 전체 도서관에 대한 사회와 국가적인 차원의 새로운 인식과 정책적인 지원, 도서관인 스스로의 자각과 질적인 측면의 업무 개선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입각하여 쓴 것이다. 이 글을 통하여 우리나라 전체 도서관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도서관의 위상이 재정립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Library of Congress, "Annual Report of Librarian of Congress, 1991,"
 Library of Congress, "The Gazette," 3(48) (December 18, 1992)
 Library of Congress, "Information Bulletin," 51(24)(December 14, 1992)
 Library of Congress, "News"
 Library of Congress, "Public Services in the Library of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Service to the Nation"
 Simpson, Andrew L., The Library of Congress,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9.
 기타 Library of Congress 관한 leaflets.

▶ 1995년도 한국도서관협회 신간안내 ① ◀

정보학의 실제/한국정보관리학회 편/A5신, 344면/12,000원(도협 회원에게는 9,600원)/〈현대정보관리학총서 제21권〉

이 책은 한국정보관리학회가, 우리 분야 학문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수작업에 의한 기능주의적 방법이 정보학적 접근방법으로 전환되어 학문 전체를 포괄하는 기본학문으로 성장』되었다는 인식 위에서, 『전통적 도서관학을 정보학이라는 새로운 틀에 용해시켜서 학문의 기초와 범주』를 보다 확고히 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8명의 중진 및 신예 연구자를 동원하여 최신정보학의 이론과 그 실재를 명쾌하게 정리한 기본·필독서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대학의 정보학원론 등 교과목에 적절한 교재가 될 수 있음. 주요 목차와 필진은 다음과 같음.

| | |
|----------------------|-------------------|
| 정보학의 성립과 학문적 특성/이 두영 | 컴퓨터 기술과 정보관리/김 태승 |
| 통신기술과 정보관리/서 은경 | 인공지능과 정보관리/정 영미 |
| 정보의 조직과 축적/윤 구호 | 정보검색/사공 철 |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유 재욱 | 온라인 정보서비스/장 해란 |